

# 한국전쟁과 가사문학\*

고순희\*\*

## <차 례>

1. 머리말
2. 가사 자료의 제시와 고증
3.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
4. 문학사적 의미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의 경험을 서술한 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사는 총 7편으로, <회심소> <원한가> <고향 떠난 회심곡> <피란사> <나라의 비극> <추월감> <셋태비감> 등이다. <추월감>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먼저 각 가사 자료의 확인된 소재지를 정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작품 내용의 분석을 통해 각 가사가 한국전쟁과 관련한다는 점, 가사의 창작연대, 작가의 성별,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 등을 고증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을 분석했다. 국군과 인민군 중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벗어나 전쟁 자체에 대한 반감에 초점을 두고 서술한 가사는 <회심소>, <나라의 비극>, <피란사> 등이다. 국군의 입장에서 서술한 가사는 <원한가>와 <고향 떠난 회심곡>이다. 그리고 좌우갈등의 문제를 서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PS-2010-0356).

\*\* 부경대학교

술한 가사는 <추월감>과 <셋태비감>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가사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했다. 가사문학이 한국전쟁 당시까지도 장르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는 점,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의 경험과 입장들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점, 한국전쟁 당시 동족상쟁의 비극성을 한탄하고 전쟁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들 가사 작품의 문학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한국전쟁, 회심사, 원한가, 고향떠난회심곡, 피란사, 나라의비극, 추월감, 세태비감

## 1. 머리말

영남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도 가사문학을 활발하게 창작하고 향유했다. 이렇게 창작된 익명의 가사 작품들은 현재 필사본으로 전해지거나,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필사본을 모아 활자화한 자료집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사 작품들은 엄청난 양이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읽혀지지 않아 그 문학적 양상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사 작품들 가운데는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수용하며 작가의 사연을 서술하여 당대를 증언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아직 읽혀지지 않은 가사 작품들에 대한 꼼꼼한 ‘읽기’를 통해 이들 가사 작품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그 동안 필사본 자료나 필사본을 활자화한 가사자료집을 읽어왔다. 그리하여 한국전쟁 당시에 창작된 일련의 가사 작품을 수집할 수 있었다. 수집한 가사 작품은 <회심스> <원한가>

<고향 썬난 회심곡> <피란사> <나라의 비극> <추월감> <셋태비감> 등이다. 이것들은 한국전쟁 당시에 창작되어 전쟁에 대한 작가의 소회, 피란 시 겪었던 작가의 사연, 그리고 당시의 서정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추월감>만이 고순희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작품론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고<sup>1)</sup>, 이 외의 작품들은 학계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가사 작품들을 ‘한국전쟁과 가사문학<sup>2)</sup>’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들 가사는 대부분 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가사이므로 자료의 정확한 소재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상 가사를 실은 활자 자료집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작품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 가사가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도 있다. 그리고 가사의 창작연대와 작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각 작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밝힐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논문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동족상쟁의 전쟁인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에 주목하여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은 언뜻 보아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문학을 수집하여 그 자료를 제시하고 고증한 후,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1) 고순희, 「규방가사 <추월감> 연구 : 한 여인의 피난생활과 좌우갈등」, 『고시가연구』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21~48쪽.

2) 이들 가사 작품들을 ‘한국전쟁가사’라고 유형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사문학사에서 전란에 참여하여 전란의 과정을 읊거나 전의(戰意)를 고취하기 위해 지은 가사를 ‘전란가사’라는 유형으로 설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전란가사로 논의되고 있는 가사로는 <남정가(南征歌)>(을묘왜변), <선상탄(船上嘆)>과 <용사음(龍蛇吟)>(임진왜란), <정주가(定州歌)>(홍경래난), <고병정가사(告兵丁歌辭)>와 <신의관창의가(申議官倡義歌)>(의병활동) 등이 있다. 이렇게 전란가사는 전란에 참여한 당사자가 지은 것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작가가 지은 한국전쟁가사와 작품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 ‘전쟁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전란가사와의 연속성 문제가 있게 되어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가사’라는 유형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 가사문학의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2장에서는 이들 가사 자료가 실린 소재지를 밝히고, 작가와 창작연대에 대해 자세하게 고증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들 가사문학의 문학사적인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 2. 가사 자료의 제시와 고증

필자는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사본은 물론 필사본을 활자화해 출판한 가사자료집을 모두 조사했다<sup>3)</sup>. 그리하여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 작품으로 총 7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심스>의 작가는 남성이다. 이 가사가 실려 있는 가사집의 소개글에서는 작가의 은거를 세상을 등지는 일반적인 은거로 보았다<sup>4)</sup>. 그러나 “원

3) 조사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책의 경우 전집인 경우도 있어 면수는 생략한다. ○ 필사본 자료 - 한국가사문학관(<http://www.gasa.go.kr>) 해제본 및 미해제본 자료.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1-50권』, 동서문화원·여강출판사·아세아문화사, 1987·1992·1998. ; 단국대올곡기념도서관 편, 『한국가사자료집성』제1 - 12권, 태학사, 1997. ;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제1 - 5권, 국학자료원, 2003. ; 조동일 편,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제1 - 2권, 박이정, 1999.

○ 활자본 자료 -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제1-20권, 아세아문화사, 2005. ; 권영철,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 권영철 편,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원, 1979. ; 이대준, 『낭송가사집』, 세종출판사, 1986. ; 이대준,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 영천시 문화공보실 편, 『규방가사집』, 영천시, 1988. ; 구미문화원, 『규방가사집』, 대일, 1984. ; 조애영·정임순·고단 공저, 『한국현대내방가사집』, 당현사, 1977.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 최태호, 『교주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0. ; 김성배 외, 『주해 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61. ; 고단, 『소고당가사집』상·하, 삼성사, 1991. ; 고단, 『소고당가사속집전』, 삼성사, 1999. ;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 금강출판사, 1971. ; 이휘 편·조춘호 주석, 『견문취류』, 이회, 2003.

4) 영천시,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8, 190~193쪽. 이 작품 앞에 다음과 같은 소개글이 실려 있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은둔 처사로 살겠다며 객지에서 생활한 어느 남자의 글이다. 당시의 사회상을 한탄하며 아울러 세상을 등지고 살다보니

슈로다 이식상이 풍진이 틱심하다 / 일국으로 분중호야 남북선을 갈나노  
코 / 동족혈전 거지업다”, “증집이 낙인디야 이슴회를 수령하이”, “회피로  
작성하고 타향이 이거하니” 등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은거는  
한국전쟁 당시 징집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품 내용에 늙은 어머니  
이 살림하는 것을 걱정하는 대목이 있어 작가가 미혼인 것으로 보이는  
데<sup>5)</sup>, 따라서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가사의 창작연대는 징집이 이루어진 시기인 1950년으로  
추정된다.

<원한가>의 작가는 철원 태생으로 상주시 함창읍 권영철씨의 모친이라  
고 한다<sup>6)</sup>. 한국전쟁이 발발한 당시 작가의 남편은 육사에 다니고 있었고,  
17~8세에 결혼한 작가에게 어린 아이 셋이 있었다<sup>7)</sup>. 그러므로 창작 당  
시 작가의 나이는 2~30대로 추정된다. 작가는 국군 남편을 두었기 때문  
에 인민군의 진격 소식이 있자 곧바로 피난을 떠났다<sup>8)</sup>. 이후 피난지 부산  
진에서 3,4개월을 지내다 고향집으로 돌아와 이 가사를 지었다. 따라서  
가사의 창작연대는 1950년 가을로 추정된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어 또한 탄식하고 있다.”(위의 책, 190쪽)

- 5) “실허무인 부모임은 이지할곳 전혀업닌 / 노부모의 막연소처 부주님은 신앙으로 /  
십여연을 신고시고 노쇠하신 자모님이 / 궁한한 가정사리 어이하야 경과하리” 여  
기서 작가의 모친이 가정살림을 꾸리고 있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된다.
- 6) 이대준 편,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446~461쪽. 이 작품 앞에 다음과  
같은 소개글이 실려 있다. “이 가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시집은 여인이 6.25를  
겪으면서 고향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는 과정과, 전쟁이 끝나고 다시 찾  
은 고향에서 듣게 되는 남편의 전사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피난을 떠나  
는 과정에서 겪은 시련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남편  
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절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이 가  
사의 작자는 상주시 함창읍의 권영철씨의 모친이다.”(위의 책, 446쪽)
- 7) “세월도 여류하다 십칠팔세 처녀시가 / 어젠듯 하진마는 어언간 부모되어” ; “철모  
르는 저의형제 연약애통 불쌍해라 / 잔인하다 영철형제 산해같은 너의부친 / 만리  
구원 참말이나 고로혈혈 너의거동 / 조그마한 그목통에 아빠아빠 부르짖고”
- 8) 『한국전쟁 1129일』(이중근 편저, 우정문고, 2014, 67쪽)의 7월 14일(20일차) 기  
록에 의하면 북한군 제15·1사단이 계속 남하해 함창 동쪽 40km의 안동으로 지향했  
다. 상주 함창읍에 인민군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은 전쟁 발발 후 20일 만이었다.

<고향 떠난 회심곡>의 작가는 남성이다. 이 가사가 실려 있는 가사집의 소개글에서는 이 작품을 ‘광복 후 좌우익 이념투쟁’을 배경으로 하는 가사로 보았다<sup>9)</sup>. 그러나 ‘무정하다 공산군들 어이그리 악독한고’나 ‘뜻밖에 소개명령’ 등의 구절로 보아 한국전쟁 당시의 작품임이 분명하다. 작가가 ‘어린 처자’를 거느리고 피난을 갔으므로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20~30대로 추정된다<sup>10)</sup>. 작가가 공산군 치하에 있다가 소개명령으로 피난을 떠나 추위에 떠는 것<sup>11)</sup>으로 보아 가사의 창작연대는 1950년 늦가을로 추정된다.

<피란사><sup>12)</sup>의 작가는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사는 여성<sup>13)</sup>이다. 작품 내용에 ‘오금, 왕신, 인동, 유금’ 등의 피난지 지명이 나온다. 이곳이 어느 곳인지 조사해보니 경주 북부 지역으로 형산강 주변에 있는 ‘오금리, 왕신리, 인동리, 유금리’ 등이었다. “다산우리 열넛식구”와 “팔월리라 디보름 날 다산우소 도라든이”라는 구절에 의하면 작가가 사는 곳은 ‘다산’이다. 경주 부근에서 ‘다산’을 조사해보니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로 밝혀졌다. 작가는 시종일관 가족과 함께 피난을 다녔으며,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서술이 없다. 따라서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10대로 결혼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피난지는 낙동강 방어선인 영천~포항 전투지 부근이었다. 이 전투가 벌어진 것은 1950년 8~9월이고, 작가의 귀향이 추석에 이루

9) 영천시, 앞의 책, 15~17쪽. 이 작품에 대한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고향을 떠난 어느 객인의 고달프고 서러운 사연을 가사로 엮은 글이다. 일제치하의 곤혹스런 생활과 8·15 광복 후의 좌우익 이념투쟁의 틈바구니에서 지친 삶을 술회했다. 이 가사로 당시의 소시민의 감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작품이다.”(위의 책, 15쪽)

10) 작품 내용에 “늘은부모 어린처즈 도중이 헛쳐두고”라는 구절로 보아 작가는 ‘어린처자’를 거느린 20~30대 남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 “가족을 인도하야 방으로 드러간이 / 슈년간 빈인방의 츠기는 빙설갓다 / 노부모 치위호고 어린아히 밥척한이”

12) 한국가사문학관 > 가사 > 해제본 자료.

13) 작품 내용에 의하면 작가가 부르는 호칭에서 ‘오빠’가 등장하여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인술하리 정희보자 조모곶티 다섯식구 / 빅부넝기 부탁호고 그나마지 큰집식구 / 하양옴바 담당호고 윤디넝 일곱식구 / 각촌옴바 담당호고 다산우리 열넛식구”

어졌으므로 가사의 창작연대는 1950년 가을이다.

<나라의 비극><sup>14)</sup>의 작가는 남성이다. 가사 말미의 “글시흥필 괴괴 權炳姬 甲午年 인쇄”라는 기록에서 ‘권병희’는 필사자일 가능성이 있어 작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작가는 피난 후 ‘고향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찾는데, ‘아들’ 및 ‘형제’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작가는 고향집에서 아들 및 형제와 함께 살았으므로 아무래도 남성으로 추정된다. 작가가 피난 후 고향집에 돌아와 보이지 않았다는 아들은 작가가 피난 갔던 사이에 징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징집 가능성이 있는 나이의 아들을 둔 30~40대로 추정된다. 창작연대는 불분명하나 고향집으로 돌아온 것이 다른 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군 탈환 직후로 보여 195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월감><sup>15)</sup>의 작가는 남씨부인이다<sup>16)</sup>. 작가의 피난이 9월 중순 경에 시작되었고, 작가가 표류하며 산 지 ‘수삼년’[당시에는 보통 햇수로 계산했다]이 되었다고 했으며, 가을밤에 이 가사를 지었으므로 가사의 창작연대는 1952년 가을이다. 그리고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인다<sup>17)</sup>.

14)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22권, 여강출판사, 1992, 381~395쪽.

15) 역대본1-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46권, 아세아문화사, 1998, 491~505쪽.  
; 역대본2-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46권, 아세아문화사, 1998, 597~629쪽.  
; 역대본3-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48권, 아세아문화사, 1998, 166~182쪽.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한국가사자료집성』3권, 태학사, 1997, 399~415쪽(앞의 것과 동일 필사본이다). ; 문경본-『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 郷土史料, 문경문화원, 1994, 210~218쪽. ; 하동호본-하동호 주해, 『六二五動亂 歷史』, 『시문학』96호, 시문학사, 1979년 7월, 28~34쪽. ; 가사문학관본-한국가사문학관 > 가사 > 해제본 자료. ; 내앞마을본-내앞마을 수집 자료. 이외에도 권영철(『구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377~378쪽)이 언급한 <추월감>이 있으나 이 이본을 구해볼 수 없었다.

16) 하동호본에는 작품 앞에 ‘남소제 지음’과 말미에 ‘壬辰秋八月’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문경본에는 “임진 추팔월 망간에 추월을 완상하며 남소제 기록이라”라는 기록이 있다. 한편 권영철은 <추월감>을 언급하면서 ‘경북 안동군 길안면 용계동 인하댁 소장(남씨부인작이라고 전한다)’라고 적고 있다(앞의 책, 377쪽).

17) 고순희, 앞의 논문, 28~30쪽.

<셋태비감><sup>18)</sup>의 작가는 여성이다. 이 작품의 창작은 시간차를 두고 적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①가족이 헤어진지 이삼세월 지난후에 / 그리던 고향산천 반가히 다시와서 / 사변에 지난역사 세세히 설화하니 / --- / ②힘업시 ○○하니 십구연 지난일이 / 인간고회 몇회이고 꽃갓치 피는얼골 / 장미갓치 짓흔향귀 봄이갈까 두려우나 / 참지못할 세월이라 한숨이 흘러나고 / 지금은 다시와서 이십세월 맞이한이 / 세사업 세출발이 어이하여 지나갈가 / --- / ③어느덧 유수세월 백마가 달려가서 / 과지사과 대엇건만 사변에 가신모친 / 어느곳이 평화로워 소식조차 불통한이 / 어대락고 차자갈고 험악한 산이막혀 / 넘지못해 못오신가 푸른물이 가로막혀 / 건너지못해 못오신가 슬푸다 우리엄마 / 어이하여 못오시고 연연서 오는봄은 / 금년다시 차자오니 말업는 초목에는 / 새움이 만발한이 별과나비 춤추는 곳

①에서 작가는 가족과 헤어진 지 “이삼세월”이 지난 후에 가족과 다시 상봉했다고 했다. 햇수로 따져볼 때 작가가 가족과 상봉한 해는 1951~2년임을 알 수 있다. 가족과 상봉한 직후 작가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②에서 알 수 있듯이 감옥에서 19세를 보내고 20세를 맞이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것을 서술한 시점은 1952~3년 봄까지이다. 그리고 작가는 ③에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백마가 달려’ 과거지사가 다 되었지만 전쟁 중에 떠나가신 모친과는 소식이 불통인 상태로 또다시 봄이 왔다고 했다. ‘백마’는 ‘백마년’ 즉 1954년을 말한다. 따라서 백마년이 지나고 봄이 온 해는 1955년이 된다. 그런데 가사의 주 내용은 ③ 이전까지이다. 그리하여 ③의 내용은 아무래도 나중에 덧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가사의 일차적 창작연대는 1952년 혹은 1953년 봄이며, 이차적 창작시기는 1955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20~23세였으며, 결혼한 후였다<sup>19)</sup>.

18)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25권, 여강출판사, 1992, 127~132쪽.

19) “십구연 지난일이 인간고회 몇회이고 / 꽃갓치 피는얼골 장미갓치 짓흔향귀 / 봄이갈까 두려우나 참지못할 세월이라 / 한숨이 흘러나고 지금은 다시와서 / 이십세



이상 소개한 가사 자료 7편의 개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제목	작가	나이	창작연대	이본	비고
회심스	남성	10~20대	1950	유일본	
원한가	여성	20~30대	1950	유일본	
고향 썬난 회심곡	남성	20~30대	1950	유일본	
피란사	여성	10대	1950	유일본	
나라의 비극	남성	30~40대	1950	유일본	
추월감	남씨 부인	40대 후반	1952	역대본1	추월가라
				역대본2	추월감
				역대본3	피란가
				문경본	추월가(秋月歌)
				하동호본	六·二五動亂歷史
				가사문학관본	추월감
내앞마을본	추월감				
셋태비감	여성	20~23세	1952:3/55	유일본	

총 7편의 가사는 <추월감>을 제외하고 모두 유일본만 전한다. 가장 왕성한 향유활동을 보인 가사는 <추월감>으로 확인된 이본만 7편이나 된다. 위의 표 비교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본마다 제목이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추월감>을 대표 제목으로 삼았으며, 역대본2를 인용한다. <셋태비감>은 1955년에 마지막으로 가필되었으나, 1952~3년에 주 내용의 창

월 맛이한이” ; “의처로운 우리동기 어이하여 살어가나 / 나년오즉 출가외인 나를  
생각 맞지마라“

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한국전쟁 당시에 창작된 가사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권영철이 육이오동란가계 가사로 언급한 <육이오동란가>와 <부인감별곡><sup>20)</sup>이 있으나, 이 자료들을 입수하지 못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한편 한국전쟁과 관련한 가사로 <삼신기명애무가>와 <회포가>가 있다<sup>21)</sup>. 전자는 한국전쟁 당시 작가가 겪었던 일을 회고하여 쓴 가사이며, 후자는 한국전쟁 때 떠나간 남편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서정을 담은 가사이다. 두 가사 모두 한국전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창작시기가 한국전쟁 이 끝나고 난 한참 뒤여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3.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

작가들은 모두 한국전쟁의 충격을 서술하면서 가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부분 36년간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만세를 불렀지만, 뜻하지 않게 38선이 그어졌고 급기야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발했음을 서술했다<sup>22)</sup>. 한

20) 권영철, 앞의 책, 377쪽.

21) <삼신기명애무가>는 소고당 고단이 쓴 가사로, 삼신동이와 삼신시루를 보며 육이오 때를 회상했다. 조애영·정임순·고단 공저, 『한국현대내방가사집』, 당현사, 1977, 89~94쪽. ; <회포가>는 한국전쟁 중에 떠나간 남편을 오랜 세월 기다려온 63세 여성의 서정을 담았다. 이대준 편,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335~343쪽.

22) “원슈로다 이시상이 풍진이 틱심하다 / 일국으로 분중호야 남북선을 갈나노코 / 동족혈전 거지업다 이삼십이 청년이며 / 삼팔선이 거름되고 육십여연 노약인은 / 독신싱활 가이업다 군운인지 천운인지 / 국스는 창황호고 민싱은 도탄이라” <회심스> ; “천리원정 왔건만은 이내복이 이뿐인가 / 남북이 갈렸으니 평화향이 어디든고 / 소식이 막연하다 다시한번 못가보고 / 타향이 되었으니 원슈로다 원슈로다 / 삼팔선이 원슈로다 모르는게 사람이라” <원한가> ; “더한민국 만만식을 부려고 쏘 불너서 / 천만연 지나도록 오날갓치 바라편이 / 원슈로다 삼팔선이 철썩갓치 구더구나 / 무정호다 공손군들 어이그리 악독호고” <고향 썬난 회심곡> ; “이치는 난리 업닉 평화시절 스라보시 / 허썬다 늘근니요 참난리 쏘오니요 / 금연히시 경인이 라 연운이 불길튼가 / 아람다운 금슈강산 피투성이 되단말가” <피난사> ; “을유연 쉼팔월에 우리민족 방방곳곳 만세소리 / 흥괴롭든 괴시절은 편시출몽 안일는가 /

국전쟁이 발발한 것에 대한 충격을 납득하기 어려운 민족사의 전개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서술한 것이다.

작가들은 대부분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직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러나 국군과 인민군 가운데 어느 편의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많지 않다. 국군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도 있으나, 어느 한 편의 입장임을 드러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은 작가가 놓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전쟁 당시 작가가 놓인 처지’를 포괄하여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1)전쟁 자체에 대한 반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경우(<회심스><나라의 비극><피란사>), 2)국군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경우(<원한가><고향 썬난 회심곡>), 3)좌우갈등의 처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추월감><셋태비감>) 등이다. 작가는 모두 국군의 통제 하에 있는 남한 거주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에서 대놓고 인민군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작가가 겪은 고초가 적대적으로 싸운 국군과 인민군, 양측 모두에게 연루되었던 작가의 처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이것을 ‘좌우갈등의 처지’라는 용어로 나타내었다. 차례로 작품들을 분석한다.

---

아름다운 우리강토 남북을 갈나두고 / 우척좌척 원말이며 삼팔선은 무산일고 / 무자비한 현실탄에 골육상쟁 잊지할고”<추월감> ; “어대서 올려나온 난대업난 자유종이 / 것침업시 들려오니 숨겨든 태극기을 / 마음껏 흔들면서 모두기빠 뛰어것만 / 일년이 다뫓가서 삼팔선이 원말인고 / 남북으로 갈라져서 골육상쟁 어이할고”<셋태비감> ; “을유해방 총소리가 삼철이의 울일적의 / 자유평화 닷쳤다고 남여노소 춤을춤 / 길리길리 뛰어건만 예통할스 우리민족 / 원통할스 우리겨레 오손도손 살슈업서 / 남북어로 갈나지고 좌우로 분별하여 / 골육상쟁 일삼으니 아비는 아들치고”<나라의 비극>

### 3.1. 전쟁 자체에 대한 반감

<회심스>는 객지타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시국에 대한 한탄을 주로 읊어 서정성이 짙은 가사이다. 작가는 부모가 늦은 나이에 얻은 독자였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징집통지서가 2,3회 거듭 날아왔다. 그리하여 징집을 회피하기로 작정하고 타향에 이거한 것이다. <나라의 비극>은 전란 시국에 대한 한탄을 주로 서술했는데, 자신이 겪은 사연을 통해 전란의 참상도 알리고자 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작가는 포화 속에서 피난길에 올랐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은 폭격으로 기둥만 남아 있고, 아들과 형제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소하신 하나임요 압중고읍 이마암을 / 일차강임 하읍시고 분난한 이식  
상을 / 일시의 소직하고 민싱들을 구직하고 / 퍽평하기 하읍소서 빅빅사리  
비나이다 / 이육고 바라보고 다시들어 안즈스니 / 초좌이 미친회포 구비구비  
나는심사 / 참을나이 가슴탄다 진정으로 나는사심 / 어이하야 참을손야 사교  
적요 무인적의 / 공방이 홀노안즈 아모리 수심한들 / 아라쥬리 뉘잇스리 창  
천도 무심하다 / 허황한 이식상이 어이이리 지한고 / 일고중토 하여스며 은  
하슈 말은물노 / 구도이듯 시어너고 억조창싱 구직하며 / 국티민안 하여스며  
불초한 이니몸도 / 고향이 도라가서 부모임 섬기고서 <회심스>

남북어로 갈나지고 좌우로 분별하여 / 골육상쟁 일삼으니 아비는 아들치  
고 / 형과아우 서로싸워 금슈강산 골골마다 / 피비린네 낭자하닉 거긔좃차  
부족하여 / 경인년 오월달에 삼팔선니 처저저서 / 총소리는 요량하고 칼날은  
변쩍이나 / 쳐참하고 비통하다 초록갓현 젊은목숨 / 원통히도 쓰러지고 예통  
하게 죽어진니 / 두눈어로 보지못할 그광경은 어이하리 / 억메인 가슴마다  
눈물은 바다되고 / 한숨은 태산이라 누구의 죄악을 / 이리깊이 바다든가  
먼져가신 조상임너 / 후손얼 버린언가 밤낮으로 죽어진니 / 젊은원운 가엸  
어라 국제정세 바라보니 / 미소파운 큰나라의 부지럽시 조종디여 / 이긴들  
시원하고 저겨본들 신통찬은 / 에메한 싸움이라 약한민족 우리겨레 / 불상할  
다음일네 사천년을 지키오든 <나라의 비극>

<회심스>에서 작가는 빈방에 혼자 앉아 수심에 젖어 들었다. 작가의

심적 상태는 “딴회포”, “참을나이 가슴탄다”, “창천도 무심하다”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걱정적이고 불안했다. 이러한 작가의 불안한 심적 상태는 징집 회피로 집을 떠나와 늙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처지와 전란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전란 시국을 “분난한 이식상”이나 “허황한 이식상”으로 표현하여 전쟁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작가는 하나님께 비는 형식을 빌어 어서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그리하여 민생을 구제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비극>에서도 작가는 한국전쟁을 아비가 아들을 치는 골육상쟁으로 보고 한국전쟁 자체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작가는 총소리와 칼날에 “초록갓현 젊은목숨”이 “원통히도 쓰러지고 에통하게 죽어진니” 그 광경을 바라보면 ‘가슴이 억매이고 눈물은 바다가 되며 한숨이 태산처럼 나온다’고 절규하듯이 읊었다. 작가의 시각이 국군이나 인민군의 입장을 떠나 전쟁 자체의 비극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어 작가는 한국전쟁을 강대국인 ‘미소파운[미국·소련·프랑스·영국]<sup>23)</sup>’에 의해 조종되는 애매한 싸움으로 보고, 약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싸워봐야 우리 민족만 불쌍해진다고 했다. 작가는 한국전쟁의 본질을 국제정세 안에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다. 가사의 마지막에서도 작가는 조상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우리 민족이 왜 ‘몹쓸 죄악’을 저지르는지 한탄하고, “총을두고”는 ‘피에 물든 이 강산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sup>24)</sup>.

<피란사>는 피난생활의 전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 서사

23) “미소파운 큰나라”에서 “미소파운”은 각각 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일단 ‘미’는 미국, ‘소’는 소련인데, 나머지 ‘파운’에서 ‘파’를 구라파(유럽)로 보면 ‘운’이 어느 나라가 될지 해독 상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파’는 파리[巴里], ‘운’[운의 오기]은 런던[倫敦]을 말하는 것으로 해독했다. 앞의 두 자는 國名을, 뒤의 두 자는 도시명을 적은 것이다.

24) “그조상 그피바든 우리들은 왜이르리 / 모진환경 격어가며 눈을보지 못하고 / 몹쓸죄악 지언난고 원통해라 원통해라 / 이보다가 우리겨레 알지못할 타시련가 / 네겨레 네형제야 아직도 못미치니 / 총을두고 배워가리 피에무든 이강산을 / 그나마 바로잡바 세나라를 차져려”

성이 짙은 가사이다. 전쟁이 나자 작가의 열네 가족은 조모와 백부가 있는 ‘오금’으로 갔다. 그곳에 모인 57명 친족들은 인솔자를 정하여 피난길에 올랐다. 처음 도착한 형산강변의 피난지에는 피난민들이 만 여명이나 모여들어 살았다. 그런데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군인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포화를 피해 ‘왕신’으로의 남하와 ‘오금’으로의 북상을 반복하다가 오금에 당도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 온가족이 위험하다는 백부의 말에 ‘인동’과 ‘유금’에서 49일의 피난생활을 했다. 그러다 한가위를 맞이해 ‘다산’ 집으로 돌아왔다.

작가는 인민군을 피해 국군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으며, 전세에 따라서는 애초의 피난지에서 더 남하하기도 했다<sup>25)</sup>.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전 징상티 엇더튼고 우리오든 그날부터 / 북으로 오난적군 인동유금 넘어 들고 / 남으로 막은아군 국당오금 돌너스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민군을 ‘적군’으로, 국군을 ‘아군’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언명과는 달리 작가는 국군의 입장에서만 한국전쟁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①합방이후 외정난리 나라는 적다만은 / 난리도 만들시고 이지는 난리업  
 닉 / 평화시절 스라보시 / 허썩다 늘근뇨 참난리 쏘오뇨 / 금연히시  
 경인이라 연운이 불길튼가 / 아람다운 금슈강산 피투성이 되단말가 / 사랑하  
 든 동포형지 골육승정 가소롭다 / --- / ②무지한 우리농민 난리포푼 알슈  
 업고 / 일선중병 아닌바는 알어도 실곳업다 / 군기이 비밀지스 어딴서 엇더  
 한일 / 보아도 못본다시 들어도 못들은치 / 니가가진 마음이나 찢그시 보준  
 햏야 / 이몸이 죽기전의 쪽바리기 가진마음 / 청천이 빅일갓치 구름한점 덤  
 지말고 / 후원이 송죽갓치 바람셔리 견된다면 / 피란방법 이분이라 멀이간들  
 피란할가 / --- / ③비나니다 비나니다 흥나님전 비난니다 / 우리동방 평화  
 식월 난리업시 살기햏소

①에서 작가는 일제강점기의 ‘왜정 난리’가 끝나 이제는 난리가 없는

25) “아무것도 싱각말고 싱명이나 구히보즈 / 군인의 급훈호령 쏘흔변 혼이나닉 / 가  
 소가소 다들가소 남으로 썰니가소 / 안니갈수 업난스정 가기스 가지마는 / 비가오  
 고 저문날이 어딴로 간단말고”

‘평화시절’을 살게 될 줄 알았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 ‘참난리’가 닥쳤다고 했다. 그리하여 ‘사랑하던 동포형제’가 ‘골육상쟁’을 하게 되니 ‘가소롭다’고 했다. 골육상쟁의 전쟁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에 ‘가소롭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 ②는 피난에 앞서 작가의 부친이 가족을 불러 놓고 ‘몸 피난’보다 ‘마음 피난’이 중요하다고 피력한 말의 일부이다. 농민들은 일선장병이 아니니 어디서 포화가 쏟아질지 모른다. 군대의 비밀지사는 보아도 보지 못한 체, 들어도 듣지 못한 체 지내야 한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똑바르게 가져 ‘송죽(松竹)’처럼 ‘바람과 서리’를 견디는 것이 최선의 피난 방법이라고 했다. 군인들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깨끗하고 똑바르게’ 가지자고 함으로써 국군과 인민군의 어느 한 입장에 서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작가는 ③에서 하나님을 향해 ‘난리’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으로 가사의 끝을 맺었다. 가사의 말미를 한국전쟁을 ‘참난리’라고 말한 서두와 수미상관하게 연결해 끝맺은 것이다. 이렇게 작가는 한국전쟁이 국군이나 인민군 어느 한 편만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불운임을 인식하고 한국전쟁 자체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 3.2. 국군의 입장

<원한가>는 전란 중 겪은 사연을 서술하여 서사성이 강한 가운데 딸과 남편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서정도 장황하게 읊어 서정성도 아울러 지니는 가사이다. 작가는 철원 태생으로 십세 전에 부친을 잃고 규중여행(閨中女行)을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경상도 함창땅의 권씨문중에 시집을 와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던 중 3·8선이 그어져 친정에도 못가는 신세가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육사에 다니던 남편이 국군으로 참전했다. 인민군이 밀려오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딸 영점이는 고향에 두고<sup>26)</sup>

26) “잔인할사 나의애녀 불상할사 영점이를 / 앞못보는 조고씨와 가엽게도 떨쳐놓고”

두 아들과 시아버지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어렵게 부산행 기차에 올랐으나 시아버지를 잃어 버렸다가 다음날에서야 찾기도 했다. 부산진에서 3~4개월을 지내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으며,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①악마경인 육이오에 광풍같은 공산군이 / 일조에 습격하여 일동이 혼비백산 / 놀랍고 귀막혀라 우리동포 군센마음 / 다시먹고 악마를 물리치소 피난지를 찾으려니 / 특출한 군인가족 잠시인들 어쩔손가 / --- / ②근근이 부지하여 삼사삭을 지낸후에 / 악마같은 빨갱이를 용감할사 우리국군 / 공산군을 물리치고 남하했든 피난민을 / 고향으로 가라하니 진야몽야 아닐런가 / --- / ③모진마음 다시먹고 아무쪼록 내가살아 / 불쌍한 너의형제 남의자식 부럽잖게 / 조심조심 길러내어 군자뒤를 보전히기 / 굳게굳게 맹서하여 가슴속엘 맞겼으나 / --- / ④특출한 제화인격 원통하고 극통하다 / 일생일사 못면커든 널리널리 생각하게 / 이왕이면 충신되서 군부에 명성날려 / 만세에 애국가를 소리높히 부르면서 / 용감하게 마친후에 거룩하게 가졌으니 / 내마음이 상쾌하다 잘가소서 잘가소서

작가는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다가 국군으로 참전한 남편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으며, 시종일관 공산군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①에서 작가는 공산군이 ‘광풍’ 같이 빠르게 밀려오자 ‘우리동포’에게 “악마”를 물리쳐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자신은 ‘특출한 군인 가족’이므로 잠시도 머무를 수 없어 피난을 떠난다고 했다. ②는 피난지 부산에서 국군이 상주지역을 탈환한 소식을 듣는 대목이다. 당시 상주 함창읍에 인민군이 들이 닦친 것은 전쟁 발발 후 20일만이었으며<sup>27)</sup>, 이후 상주 함창읍은 낙동강 전선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 여기서도 작가는 공산군을 “악마같은 빨갱이”로 표현하여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국군 장교의 아내로서 반공사상을 투철하게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③에서 작가는 남편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졌으나 모진 마음을 다시 먹고 자식들을 잘 길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작가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27) 주 10) 참조.



데 가사의 마지막 즈음에 해당하는 ④에 가면 나름의 방식으로 이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특출한 인재였던 남편의 죽음은 원통하지만 어차피 한번은 겪을 죽음이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은 군부에 명성을 날린 용감하고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작가는 “마음이 상쾌”해졌으며, 그제서야 “잘가소서 잘가소서”라는 망자에 대한 송사가 나올 수 있었다. 남편의 죽음을 용감하고 거룩한 죽음으로 평가함으로써 남편의 죽음을 애써 받아들이려는 작가의 심적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여성 작가의 모습은 꽤나 낯설기까지 하다.

<고향 쉰 회심곡>에서도 작가는 공산군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공산군이 쳐들어와 농민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개 명령이 떨어져 작가는 피난을 가게 되어, 겨우 사천<sup>28)</sup>에 방한 칸을 빌려 살게 되었다.

무정하다 공산군들 어이그리 악독하고 / 다갯탄 당군후손 좌우역이 외싱  
건난 / 좌우역은 잇슬망중 살인방화 무산말고 / 그딤들도 사남으로 농민을  
몰나든가 / 밭야이 침물혀야 싱양이복 화지등을 / 잇는디로 탈취한이 빅성의  
의무로서 / 정보든 흥건이와 관가이 스연아라 / 범갯한 구경들은 농민을 불  
러다가 / 스람마다 치죄히 양민도 잇건이와 / 범인이 업실손가 불상하다  
농촌스람 / 위험을 못이기셔 시포가임 죄인이요 / 밥촌것도 죄악이라 이갯탄  
도탄중이 / 이려하며 사라날가 시려하며 범죄될가

위는 작가가 피난을 떠나기 전 마을의 상황을 읊은 것이다. 작가는 공산군들이 마을에 들어와 행한 소행을 ‘악독하다’고 하면서, 그 소행을 낱말이 고발했다. 다 같은 단군 후손인데 살인방화를 일삼고, 농민들에게서 식량, 의복, 땀감 등을 있는 대로 탈취해가고, 마을민들을 관가에 끌어가 치죄하여 억지 죄인을 만들어 떨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을에 들이닥친 인민군의 소행을 비판함으로써 국군의 입장에서 가사를 창작하고 있음

28) “슈빅호 솟천동너 방을비려 단일적이”

이 드러난다.

### 3.3. 좌우갈등의 처지

<추월감>은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 작품 가운데 가장 긴 가사이다. 작가의 파란만장한 피난생활과 사연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면서, 당시의 서정도 짙진하게 표현해 서사성과 서정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6·25가 발발한 가을에 오남매를 이끌고 남편과 아들이 간북쪽을 향해 피난길에 나섰으나 다시 남쪽을 향해 발을 돌렸다. 심산공곡의 인가를 찾아가 신세를 지고, 추석도 길에서 보냈다. 그러던 중 군인에게 검거되어 문초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1·4 후퇴로 풀려나 충청도 계룡산에서 잡상인으로 일 년여를 보냈다. 이후 친정을 찾아가 생활하지만 눈치가 보여 따로 나와 살게 되었다.

<추월감>은 좌우갈등의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다. 서울에 살던 작가는 연합군의 서울 입성에 맞추어 가을에 피난을 떠났다. ‘남북에 상좌하여 / 사생존망 막연한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의 남편과 큰아들은 인민군일 가능성이 많다. 작품의 내용에 ‘제국주의, 혁명투사, 무산자, 동지’ 등<sup>29)</sup>의 용어가 사용된 점도 이 추정을 뒷받침한다. 인민군의 직계가족으로서 작가의 피난생활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과 큰아들이 간북쪽으로 더이상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길을 가다 군인에게 검거되어 문초를 받기도 했다. 이때 작가는 자식 가장을 위한 마음으로 차라리 죽여 달라고 고함치며 군인의 무수한 구타를 이겨냈다. 1·4후퇴로 겨우 감옥에서 탈출한 작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가지 못하고 계룡산에서 일년 가깝도록 지냈다. 그곳에서 작가는 ‘한 많은 동지들’을 향해 자식가장의 뒤를 이어 불꽃 같은 정신을 잃지 말고 서로 만날 날을 기

29) ‘제국주에 괴형테을 / 괴되로 쏜바드니’ ; ‘혁명투사 썬난몸은 / 불고가사 불고처자’ ; ‘적수공군 무산자가 / 엇지하면 산단말가’ ; ‘한만은 동지들아 / 자식가장 뒤를이여’

다리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작가는 인민군의 가족으로서 남한에서 피난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하여 좌·우 갈등의 문제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비극적인 처지의 여성이었다. 그런데 인민군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인민군의 입장에서만 한국전쟁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도 작가의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은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다. 작가는 한민족이 좌우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하는 한국전쟁 자체를 제국주의자의 농간으로 인식했다. 그리하여 국군과 마찬가지로 인민군인 남편과 아들도 역시 아군이라고 부르짖어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sup>30)</sup>.

<셋태비감>에서는 <추월감>과는 다른 좌우갈등의 문제를 드러낸다. 인민군이 쳐들어오자 부모형제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작가는 남아 있었다. 이삼년 후 피난 갔던 친정가족과 상봉했다. 그런데 작가는 잘못된 일이 있어 자수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감옥에서 석방될 날만을 기다리고, 아직 오지 않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작가는 “씩씩한 유엔군과 강철같은 우리국군”<sup>31)</sup>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국군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국군의 탈환 이후 작가는 자수하고 감옥에 갇히는 복잡한 사연을 지녔다.

①철업시 잘못함을 / 누구에게 말하리요 철업고 어린가슴 / 뛰는피가 진정치 못 / ②사변에 여러사람 잇건마는 / 어대로 다가고서 나에게만 맞기고 / ③출생후 첨가는 지서에 들어가니 / 뛰는가슴 진정하며 사찰게 형사보고 / 그연간 지난일을 세세히 설명하니 / 하르잇틀 지나든일 가슴오죽 타오리요 / 세월이 흘러는야 찬바람이 불어오니 / 뺏겼을 오리는데 잠인들 쉽게 오라 / 공상인들 업스리요 십구세의 어린 / 갓친몸이 대고보니 외로워 쏘는 눈물 / 소낙비의 비하리요 저도언제 집에가서 / 평화로운 꿈을꾸나 쓸대업난

30) 이 작품의 좌우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고순희(앞의 논문, 31~45쪽)의 분석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것을 간단히 요약, 정리했다.

31) “인민군은 힘을내여 삼육도선을 넘어 / 요란한 총소리는 천지를 울리는데 / 썩썩한 유엔군과 강철같은 우리국군 / 몸과마음 다뺏치며 조국을 위하여서 / 고생을 극복하여 끝까지 싸워서니”

헛된공상 / --- / ④어느듯 유수세월 백마가 달려가서 / 과지사과 대엇건만

위는 작가가 피난 갔던 가족과 상봉한 이후의 사연을 적은 부분이다. ③에서 드러나듯이 작가는 난생 처음으로 지서에 가서 사찰계 형사에게 지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수를 했다. 작가의 죄목은 ‘사찰계’ 형사를 찾아간 것으로 보아 사상범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저간의 정황을 ①과 ②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①에서 작가는 ‘철없이 잘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②에서 작가는 여러 사람이 있었건만 다 어디로 가고 자신에게 일을 맡겼느냐고 원망하고 있다. 피난을 가지 않았던 작가가 인민군의 치하에서 부역자로 참여했다가 국군 치하로 다시 돌아가자 부역을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④에 의하면 작가는 이 일로 감옥에 수감되어 1954년 경에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부역 죄가 훈방 조치가 아니라 복역으로 다스려진 것으로 보아 작가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의 부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작가는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을 했으나, 다시 국군 치하가 되자 그것을 어디까지나 ‘철없는 잘못’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과 국군의 교차 점령지에서 어느 한 편에 부역 혹은 협조했다가 그것 때문에 처벌 된 한국인이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한국전쟁 당시 좌우이념 갈등으로 고초를 당한 수많은 한국인의 사연을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월감>과 <셋태비감>의 작가는 좌우갈등의 처지에 있었는데, <추월감>의 작가는 남편과 큰아들이 인민군이었고, <셋태비감>의 작가는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자였다. 그리고 전자가 인민군의 입장에, 후자는 국군의 입장에 보다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사의 작가는 인민군과 일정 정도 관련을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인민군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한국전쟁을 동족상쟁의 전쟁으로 보고 그 전쟁 자체를 거부하고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꿈꾸고 있음이

드러난다.

#### 4. 문학사적 의미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로 확인된 작품들은 대부분 낙동강 전선에서의 피난생활을 담고 있다. <원한가>의 작가는 상주시 함창읍에 살다가 부산진까지 피난을 갔다. <고향 써난 회심곡>의 작가는 피난하여 방을 얻은 곳이 경남 사천이었으므로 아마도 진주 지역 정도의 낙동강 전선을 피해 피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란사>의 작가는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피난했으므로 영천~포항지역 낙동강 전선을 피해 피난한 것이다. 한편 <회심스>와 <고향 써난 회심곡>은 영천시에서 수집한 필사 자료를 출판한 자료집에 실려 전한다. 따라서 <회심스>의 작가도 낙동강 전선 지역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가사 작품들이 모두 1950년에 창작된 것은 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의 남하로 피난했다가 그해 가을 낙동강 전선의 종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가사를 창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월감>의 작가는 서울로 시집을 갔으나 출신지는 영남 지역으로 추정된다<sup>32)</sup>. 이와같이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문학은 대부분 낙동강 전선이 펼쳐졌던 영남지역의 작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작가의 지역적 특징은 가사문학사의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은 전통적으로 사대부가가 많아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전통이 강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이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여 수많은 가사 필사본을 남겼다. 이 지역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가사문학이 많이 창작된 것은 가사의 창작과

32) 자료가 문경과 안동 내앞마을에서 수집된 것이 있으며, 권영철이 언급한 작품도 안동 길안면에서 수집한 자료이므로(주 15) 16) 참조) 작가는 아무래도 영남 지역 출신인일 가능성이 많다.

향유 전통이 한국전쟁 당시까지도 꾸준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목할 만한 점은 작가들이 가사를 창작할 당시의 나이가 평균 20대 전후로 많아야 40대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에 이르면 나이가 많은 전통 세대나 가사문학을 창작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젊은 세대들도 가사문학을 창작한 것이다. 이들 가사는 전통 장르인 가사문학이 현대기에 이르러서도 장르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같이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문학은 가사문학의 장르적 지속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총 7편의 가사 작품 가운데 남성의 가사가 3편이나 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기에 올수록 영남지역에서의 가사 창작은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남성의 가사 3편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역사적 사건 자체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한국전쟁이라는 유래 없는 역사적 사건에 남성 작가의 관심이 쏠리게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sup>33)</sup>.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회심스>, <나라의 비극>, <피란사>의 작가는 국군과 인민군의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골육상쟁의 한국전쟁 자체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했다. 반면 <원한가>와 <고향 썰난 회심곡>의 작가는 국군의 입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인민군의 만행을 비판했다. 그리고 <추월감>과 <셋태비감>의 작가는 인민군과 국군의 입장에 치우친 정도는 각자 달라도 좌우갈등의 문제를 한 몸애 안고 있으면서 동족상쟁의 전쟁 자체를 거부하고 평화를 기원하

33)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남성의 가사문학이 여성 작가와 마찬가지로 신변탄식류 가사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같은 신변탄식류가사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가사는 그 서술내용, 지향성, 진술 양식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 연구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후일의 논의를 기대하고자 한다.

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이들 가사는 아군과 적군의 적대적인 전투의식이 고취된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철저히 국군의 입장에서만 한국전쟁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들 가사는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국군 정신으로 무장하여 전쟁을 바라본 경우도 있고, 인민군의 입장에 치우쳐서 전쟁을 바라본 경우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작가들은 당대를 온몸으로 살아갔던 이름 없는 민초를 대변한다. 작가들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치하에서 인민군을 피해 피난생활을 하며 갖은 고난을 다양하게 겪었고, 그것을 가사로 표현했다. 따라서 이들이 쓴 가사는 당대 민초들의 삶과 사고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이들 가사는 한국전쟁 당시 남한 거주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을 직면하여 가진 입장과 생생한 삶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들 가사 작품 가운데 국군의 입장에서 서술한 두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한국전쟁 자체에 강한 의문을 품고 반감을 표현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 점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가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전쟁의 충격을 납득하기 어려운 민족사의 전개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서술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이 되어 민족사의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38선이 그어져 한민족이 좌와 우로 나뉘게 되고 급기야 한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들 가사의 작가들은 한민족끼리의 전쟁을 납득할 수 없었다. 남한의 가사 작가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국군의 입장에 설 것을 강요받았지만 어느 한편에 선뜻 서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기반, 즉 한민족 의식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 작가의 정서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일반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들 가사는 한국전쟁 당시 동족상쟁의 비극성을 한탄하고 전쟁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문학사적 의미도 지닌다.

그리고 <추월감>이 확인된 이본이 7편이나 될 정도로 활발하게 향유되

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이 가사는 남편과 아들을 인민군으로 둔 한 여성의 사연을 담고 있어 사상적으로 위험한 표현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전쟁이 종식되고 반공의식이 고조된 시기에도 활발하게 유통되어 많은 이분을 낳은 것이다. 물론 이 가사에서 작가가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위험한 표현물로 미처 인식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사자와 같은 적극적인 향유자들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독자들은 한국전쟁 당시의 경험을 통해 작가와 같은 사연을 가진 한국인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사연의 비극성을 가슴으로 인정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지 않은 채, 가사에서 서술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피난생활과 꺾인 서정 그 자체를 즐기고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가사가 한국전쟁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추월감>의 활발한 유통과 향유 사실을 통해 반공시대에도 이념을 떠나 인간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전쟁 당시 작가의 경험을 서술한 가사 7편에 대하여 고찰했다. <회심스>는 10~20대의 남성이 징집을 회피하고 간 타향에서 쓴 가사다. <원한가>는 함창읍에 사는 20~30대 여성이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와 쓴 가사이다. <고향 써난 회심곡>은 20~30대 남성이 공산군 치하에 있다가 소개명령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와 쓴 가사이다. <피란사>는 경주시에 사는 10대 여성이 피난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쓴 가사이다. <나라의 비극>은 30~40대 남성이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와 쓴 가사이다. 이상 5편의 가사의 창작시기는 대부분 낙동강 전선이 회복된



1950년 가을경으로 추정되며, 유일본만 전한다. <추월감>은 40대 후반의 남씨부인이 서울에서 피난을 떠나 갖은 고생 끝에 친정 근처에 머무르게 된 후에 쓴 가사로, 창작연대는 1952년 가을이며 이본은 7편이나 확인되었다. <셋태비감>은 20~23세 여성이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한 죄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 쓴 가사로 창작연대는 1952년에서 55년 사이로 추정되며, 유일본만 확인된다.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국군과 인민군 중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벗어나 전쟁 자체에 대한 반감에 초점을 두고 서술한 가사는 <회심스>, <나라의 비극>, <피란사> 등이다. 작가의 남편이 국군으로 참전한 <원한가>와 작가가 피난 전에 인민군 치하를 겪었던 <고향 썩난 회심곡>은 국군의 입장에서 서술했다. 그리고 작가의 남편과 아들이 인민군이었던 <추월감>과 작가 자신이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했던 <셋태비감>은 좌우갈등의 문제를 서술했다. 그리하여 이들 가사 작품은 가사문학이 한국전쟁 당시까지도 장르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는 점,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의 경험과 입장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점, 한국전쟁 당시 동족상쟁의 비극성을 한탄하고 전쟁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학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창작된 가사문학의 자료를 제시하고, 문학적 양상의 하나로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만을 분석했다. 자료 제시, 고증, 그리고 한국전쟁을 직면한 작가의 입장을 분석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각 작품의 내용이나 사연은 간단하게 제시하는 수준에서만 그치고 말았다. 앞으로 각 가사의 구체적인 작품세계를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각 가사의 서정과 서사의 교차 진술을 통한 진술양식의 전개양상, 여성과 남성 작품에 나타난 작품세계·작가의식·진술양식의 차이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순희, 「규방가사 <추월감> 연구 : 한 여인의 피난생활과 좌우갈등」,  
『고시가연구』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21~48쪽.
-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377~378쪽.
-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한국가사자료집성』3권, 태학사, 1997, 399~415쪽.
- 문경문화원,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 郷土史料, 1994, 210~218쪽.
- 영천시,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8, 15~17쪽, 190~193쪽.
- 이대준 편,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335~343쪽, 446~461쪽.
- 이중근 편저, 『한국전쟁 1129일』, 우정문고, 2014, 67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22권, 여강출판사, 1992, 381~395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25권, 여강출판사, 1992, 127~132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46권, 아세아문화사, 1998, 491~505쪽,  
597~629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48권, 아세아문화사, 1998, 166~182쪽.
- 조애영·정임순·고단 공저, 『한국현대내방가사집』, 당현사, 1977, 89~94쪽.
- <추월감> : 한국가사문학관 > 가사 > 해제본 자료.
- <추월감> : 내앞마을 수집 자료.
- <피란사> : 한국가사문학관 > 가사 > 해제본 자료.
- 하동호 주해, 「六二五動亂 歷史」, 『시문학』96호, 시문학사, 1979년 7월,  
28~34쪽.

투고일 : 2014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8월 8일, 게재확정 : 8월 8일

<Abstract>

## The Korean War and Gasa

Ko, Soon-hee

This article researched the texts of Gasa which describe the experience of the writer in the period of Korean War. To obtain the texts of Gasa which describe the experience of the writer in the period of Korean War, I have extensively investigated the collections of manuscripts and printing books. As a result, seven pieces of Gasa were corrected until now. These are <hoesimsa>, <Wonhanga>, <Gowhyang-dduhnan-hoesimgok>, <Peeransa>, <narayi-beeguk>, <Chuwolgam>, <Setebigam>. Until now the academia did not pay attention to these texts of Gasa except <Chuwolgam>.

First of all, I presented the texts of Gasa which describe the experience of the writer in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ontents of work I proved the writer, writing age, the fact that each work was related to The Korean War, and whether the writer is a woman or a man.

Next, I analyzed the position of each writer facing the Korean War. Gasa which describe the antipathy to the war itself are <hoesimsa>, <narayi-beeguk>, <Peeransa>. Gasa which describe in the position of Southern soldiers are <Wonhanga>, <Gowhyang-dduhnan-hoesimgok>. Gasa which describe the ideological conflict of one woman are <Chuwolgam>, <Setebigam>.

Finally, I probed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these Gasa works. These

Gasa works has the significance as a documentary literature which typically reflect the tragedy of war and the life of our ordinary people in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these Gasa works shows us that traditional features of poetry existence was maintained until recently.

Key words : Korean-War, hoesimsa, Wonhanga,

Gowhyang-dduhn-an-hoesimgok, Peeransa, narayi-beeguk,

Chuwolgam, Setebigam.